

# 통일부, 대북 개별관광 '투트랙'...이산가족·사회단체-제3국 경유 추진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20.03.03 10:45 | 수정 : 2020.03.03 10:45

2020 통일부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사고로 남북관계 공간 넓힐 것"

다양한 경로로 북에 개별관광 의사 타진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사업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올해 '새로운 사고'로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다양한 경로로 북측에 개별관광 의사를 타진하고 이산가족·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 ■북측에 개별관광 의사 타진

3일 '2020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보건·접경협력·개별관광 등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 확보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를 통한 평화경제 실현 토대 조성 △남북간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포괄적 해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내외 통일·대북정책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개별관광은 이산가족·사회단체의 개성·금강산 방문과 제3국을 경유한 개별관광으로 나눠 추진한다.



[평양=AP/뉴스시스]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한국에서도 발생하면서 금강산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관련 30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뒤 개성 연락사무소 폐쇄에 이어 금강산 시설 철거 논의까지 중단하자고 요청했다. 사진은 2018년 10월23일 북한 주민이 금강산을 관광하는 모습. 2020.01.31.

이산가족·사회단체 관광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가 북측과 방북 관련 포괄적 합의를 하고 '초청 의사확인 서류'를 수령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제3국 경유 개별관광은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해 진행하되 북한 비자를 발급 받거나, 제3국 여행사에서 북측으로부터 '남측 관광객'을 허용받은 경우 가능해진다.

정부 및 지자체, 사회단체, 제3국 여행사 등이 먼저 다양한 경로로 북측에 개별관광 의사를 타진한다. 개별관광이 성사되면 정부는 지자체·민간인의 대북연락 지원, 방북 승인, 경의선·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통한 통행지원 등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북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DMZ 국제평화지대화 이행

남북간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과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적 사업도 추진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기반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와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과 연계해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위한 남북협의를 추진한다. 또 '접경지역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와의 협치 도모하고 '국책연구기관협의체'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해안 철책부터 금강산 전망대까지 비무장지대(DMZ). 2019.4.3/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아프리카 돼지 열병·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DMZ 평화의 길' 탐방을 재개하고 판문점 견한 관련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단축 및 규모확대, 대북 협의를 통한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JSA) 자유왕래도 추진한다.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차원 고향방문, 기상봉 가족 재교류 등 새로운 방식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남북 당국간 보건·의료분야 합의이행 노력과 함께 국제기구(WFP, UNICEF, WHO 등)를 통한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 보건, 의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인쇄하기

취소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전국    경기 북부

# 파주관광두레 주민사업체 'DMZ Army Cafe' 크라우드펀딩 진행

박선미 기자    승인 2020.03.03 09:28



▲ 파주관광두레 주민사업체 'DMZ Army Cafe' 크라우드펀딩 진행

[경기 북부 위클리오늘=박선미 기자] 파주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인 'DMZ Army Cafe'가 오는 4월 20일까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에서 DMZ에서 생산한 목련 꽃차 판매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한다.

'DMZ Army Cafe'는 DMZ와 군을 활용한 식음·기념품·체험 상품을 개발해 DMZ를 평화관광 콘텐츠로 승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소개하는 상품은 DMZ 청정지역에서 자란 목련을 1년에 한번 채취해 수작업으로 생산한 꽃차다.

이번 크라우드펀딩 모금액의 90%는 상품개발에 사용하고 나머지 10%는 파주시 청소년 문화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무료체험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가영 DMZ Army Cafe 대표는 "이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후원자들에게 DMZ 청정지역에서 자란 품질 좋은 꽃차를 소개하고 파주의 대표적인 관광특산품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광두레는 지역관광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주민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 관광두레는 지난해 출범해 현재 DMZ Army Cafe DMZ 풀먹은 한우 개성인삼 비누 평화오르골 4개의 주민사업체가 활동 중이다.

박선미 기자 etc@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 통일부 "민간·국제기구들 대북방역지원 문의...요건충족 필요"

송고시간 2020-03-03 11:47



이준삼 기자

고위당국자 "결정내용 공개여부는 관련 단체 의사 고려"



## '코로나19 초특급 방역'...북한도 연일 보도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일 공개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진으로, 평안북도 인민 병원 의료진과 방역 인력으로 보이는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3.2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 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통일부는 3일 일부 국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대북방역물자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몇몇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 대북방역물자 지원에 관한 "구두협의를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아직은 정부의 반출 승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접수된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대북 방역물자 '우회지원'이 결정될 경우 이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를 위해 투명하게 하고 싶은데, 그분(민간단체)들이 보도자료 배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들 사정을 신경 써야 한다"고 대답했다.

일부 대북지원단체 등은 북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측 정부와의 방역물자 협의 과정 및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국경없는의사회(MSF), 한국 샘복지재단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관련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역 물품 수급 등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NG-中文) 면역 취약한 북한 "마스크 안 쓰면 죄"...수입품도 격리소독유투브로 보기

js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03 11:47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